**제목 : 악몽의 연쇄**

**<잠에서 깨어난 엘리스>**

엘리스 : 이럴수가... 또 밤이야..

엘리스 : 뭔가 이상해.. 아니면 지금 이게 꿈인 걸까?... 아니 이건 현실이 맞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엘리스 : 꿈에서 이모가 나왔었어.. 계속해서 엄마가 말한 사람들이 끔찍한 모습으로 꿈에 나와... 엄마와 뭔가 관련이 있는게 아닐까? 아니면 그냥 내가 신경을 쓴 나머지 악몽을 꾸는 걸까?

엘리스 : 이 골동품 거래서도 엄마가 가져다 놓은 게 분명해! 엄마한테 가서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엘리스 방안>**

쌍둥이 인형 : 이건 삼촌들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선물로 준 인형이라고 엄마가 말해줬어.

염소 인형 : 이건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들어줬던 인형이지...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생김새가 사납게 느껴지는 걸까? 마치 날 노려보는 것 같아.. 기분 탓일까?

곰 인형 : 어제 꿈에 곰 인형이 나와서 날 도와줬어... 그런데 손이 왜 이렇게 베인 자국이 있지?

토끼 인형 : 토끼 인형도 어제 꿈에 나왔었어. 이것도 역시 배에 베인 흔적이 보여.

여우 인형 : 여우도 마찬가지야. 머리에 부분에 베인 자국이 있어.

**<문열고 나가서>**

엘리스 : 입에서 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 어서 엄마 방으로 가보자..

**<엄마와 대화>**

엘리스 : 엄마.. 지금 안자고 뭐하는 거야?

엄마 : 우리 엘레스니? 옷은 우리 딸이 입는 옷이 아닌데 머리카락은 우리 엘리스구나..

엘리스 : 무슨 소릴 하는 거야! 이제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가 얘기만 하면 꿈에 나와서 무섭단 말이야! 이 공동품거래서는 뭐야? 도대체 이모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엄마 : 이런 내 정신좀봐.. 엘리스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단다. 그래서 너한테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까 전에 내 침대 옆에 네 아빠가 찾아왔단다! 아빠가 그러는데 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 구나.

엘리스 : 엄마.. 아빠는 2년전에 죽었잖아..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자꾸 이러면 나 화낼 꺼야!

엄마 : 이런.. 많이 화났니? 엘리스야 미안하구나.. 사실 네 아빠는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겨 버렸단다...

아빠의 영혼이 오늘 우리 집에 왔는데 엘리스야.. 조심해야 해.. 사실은 악마로 변한 네 아빠가 네 영혼도 노리고 있단다. 여기서 어서 도망쳐야 해!

엘리스 : 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 해!

엄마 : 아악!.. 머리가 너무 아파...

엘리스 : 엄마! 괜찮아!? 자, 이 약 먹고 누워서 자도록 해. 난 이만 자러 가볼게.

엄마 : 그래.. 이제 다시 누워야 겠다... 잘자렴..

[엄마가 잠에 듬]

다시 엄마와 대화하면

엄마 : ... (엄마는 잠이 드셨다.)

**<방을 나와서>**

엘리스 : 도대체 죽은 아빠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엄마의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엘리스 : 하지만 나도 너무 피곤해.. 이제 그만 잠을 자러 가야겠어.

**<보스전>**

제목 : 잿빛 선물 (빨간색 글자)

삽화1 : 엘리스의 아버지는 장난감을 만드는 가게를 운영하였고 어린아이들에게 재미난 장난감을 주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다.

삽화2 : 크리스마스날에는 산타복장을 입고 엘리스와 오빠에게 장난감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준비하는 좋은 아버지였다.

삽화3 : 하지만 어느날 장난감 가게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가 만든 모든것들이 재가되어 하늘에 흩어졌다.

삽화4 : 그 후 망연자실하여 술로 세월을 보내던 아버지는 불타버린 장난감가게 발화지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공장사장의 넥타이 조각을 발견한다.

삽화5 : 하지만 증거는 없었고 복수심에 불탄 그는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장난감공장을 폭파시키기로 결심하고 불타버린 가게안에서 폭탄을 제조한다.

삽화6 : 그러나 너무 급하게 폭탄을 제조하던 중 실수로 폭발이 일어나 엘리스의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삽화7 : 폭발현장에 널브러져 있는 선물상자를 바라보며 엘리스는 선물상자에 대한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

**<보스전 전투>**

엘리스 : 여긴 예전에 우리 집 거실인데?

엘리스 : 이 음악소리는?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함께 듣던 음악이야.. 아빠가 특히 좋아했었어..

엘리스 : 또다시 꿈 속 인거야.. 역시 엄마와 관련된 뭔가가 있어!

벤전스 : 자아.. 우리 딸 엘리스.. 선물을 받을 시간이다! (빨간색 글자)

엘리스 : ...저건 대체 뭐야? 그런데 목소리는 많이 들어본 목소린데... 설마 아빠!?

벤전스 : 엘리스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흐흐흐.. (빨간색 글자)

**<삐에로 전투 대사>**

대사1 : 엘리스 이건 펑하고 터지는 아주 멋진 선물이야! (빨간색 글자)

대사2 : 엘리스 어서 피해!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대사3 : 엘리스야 널 위해 아주 멋진 폭탄선물을 준비했어!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되지 않니!? (빨간색 글자)

대사4 : 엘리스 내 몸에서 나온 시한폭탄을 선물상자에 달아서 날 폭파시켜!

대사5 : 왜 내 선물을 안받는 거지? 엘리스~ 복수할거야! 복수하고 말거라고!! (빨간색 글자)

대사6 : 이 나쁜새끼! 내 딸까지 건들지마! 복수는 이미 끝났잖아!

대사7 : 폭탄이 터져서 내 복수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여기서 못나간다 흐흐흐... (빨간색 글자)

**<전투 종료 후 >**

벤전스 : 안돼!! 아직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고! 그 놈에게 나와 똑 같은 고통을 줘야 한다고!!(빨간색 글자)

아빠 (흰 그림자) : 놈은 이미 죽었어.. 결국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받게 되어 있는 거야..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늘색 글자)

벤전스 : 아니야! 이 폭탄선물을 꼭 전해줘야 해! 아니면 엘리스 너라도 이걸 받으란 말이다! (빨간색 글자)

아빠 (흰 그림자) : 엘리스.. 못난 아빠를 구해줘서 고맙고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복수에 미쳐 가정을 돌보지 못했구나..

너와 엄마에게 정말 면목이 없어.. 넌 꼭 행복해져야 한다. 내가 바라는 건 오직 그것 뿐... 그럼 잘자렴.. (하늘색 글자)

엘리스 : 아빠...? 아빠 맞지? 가지마! 나랑 엄마만 두고 어딜 가는 거야?

아빠 (흰 그림자) : ...

엘리스 : 아빠!!

**<화재감식 보고서>**

로스펠 장난감 상점 화재감식 보고서

화재발생시간 : 새벽 2시 ~ 4시 추정

화재원인분석

1. 건물 외부에서 발화되어 내부로 번진 것으로 추정
2. 발화지점에서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화약약품이 검출됨.
3.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화재당일 발화지점 근처에 특별한 인화성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4. 당시 기상, 기온 등을 고려 자연발화 가능성 낮음.
5. 화재발생 시간대 장난감 가게 주변에 있었거나 지나쳤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함.
6. 방화로 최종 판단 시 경찰에 수사의뢰 예정. 끝.